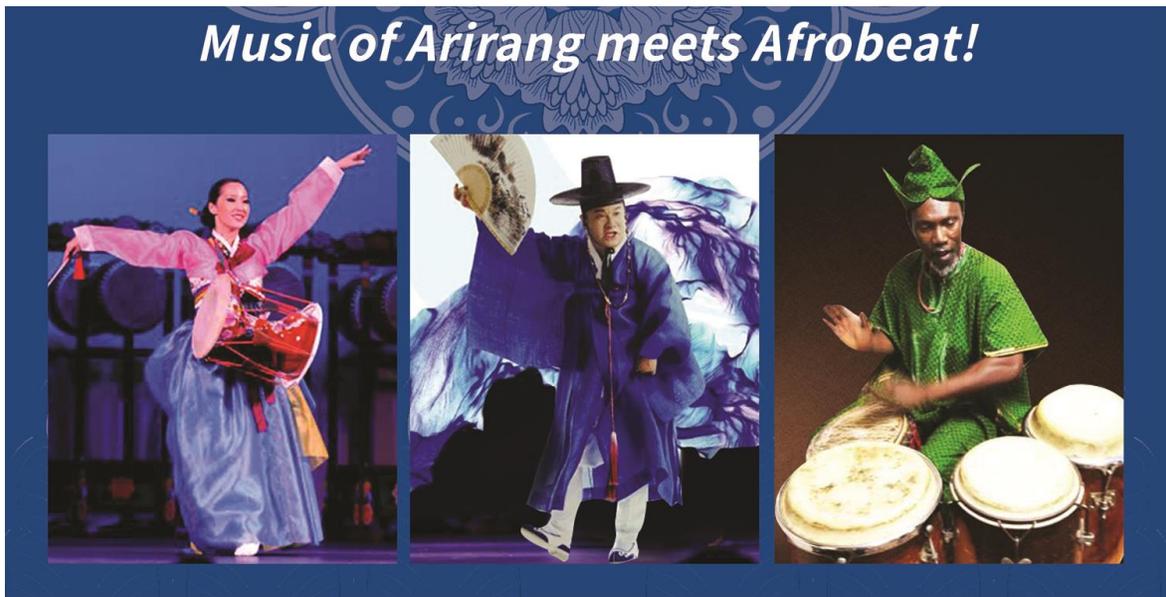


|   |                      |     |   |
|---|----------------------|-----|---|
|  <b>한국문화원</b><br>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 <b>보 도 자 료</b>       |     | LA한국문화원 <a href="http://www.kccla.org">www.kccla.org</a><br>5505 Wilshire Blvd.<br>Los Angeles, CA 90036<br>Tel (323)936-7141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쪽  |
| 배포일시  | 2016.7.28.(목)        | 담당자 | Tammy Chung 323-936-3015  |

<아리랑-아프로비트 2016 '한여름의 사랑'> 공연 개최



- ▶ 공연명 :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  
<아리랑-아프로비트 2016 '한여름의 사랑'>  
(Arirang Afrobeat 2016: Summer of Love)
- ▶ 일시 : 2016. 8. 5.(금) 19:30
- ▶ 공연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고수희무용연구소(원장 고수희)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http://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 그 여섯번째 무대로 고수희무용연구소(원장 고수희)와 함께 <아리랑-아프로비트 2016 '한여름의 사랑'> (Arirang Afrobeat 2016: Summer of Love) 한국 · 아프리카 커뮤니티 합동공연을 8.5(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아리랑-아프로비트2016: 한여름의 사랑> (Arirang Afrobeat 2016: Summer of Love)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과 월드뮤직 아프로비트\*의 이색적인 만남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부르는 '아리랑'이 아프로비트 음악과 새롭게 접목하여 아리랑-아프로비트 시나위로 미주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올리게 된다. 전통국악기 가야금, 아쟁, 대금, 장구, 북, 팽과리와 아프로비트 밴드의 키보드, 드럼, 기타, 첼로, 섹소폰, 트럼펫, 베이스, 쟜베, 콩가, 보컬 외 무용가들이 함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한-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삶과 사랑을 노래하는 특별한 아리랑퓨전 음악으로 구성되었다.

\*아프로비트는 1970년대에 '흑인대통령' '음악의 거장' '음악의 미래' '아프로비트의 제왕' 이라고 불리운 나이지리아 출신의 천재 음악인 펠라 쿠티(Fela Kuti)가 서아프리카 전통음악을 재즈(jazz),펑크(funk), 소울(soul), 하이라이프(high-life), 소리(chanted vocals), 타악(percussion)과 혼합하여 만든 장르의 음악으로, 흑인 음악가운데 레게(Raegae) 음악 이후 가장 국제화에 성공한 음악이다.

이번 공연은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교방축원무>, <경기민요>, <판소리>, <교방장구춤>, <오데레 아프리카 전통타악>, <가야금병창>, <교방살풀이>, <아리랑-아프로비트 시나위> 등 한국,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무용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며 각 커뮤니티의 특징과 독창적 아름다움을 감상할수 있는 공연이다.

남가주 지역 한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 한국무용, 사물놀이 및 봉산탈춤을 알리기에 힘써온 고수희무용단, 노희연경기민요, 운우풍뢰 사물놀이패(대표 김우연),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조통달 판소리명창과 제자들, 아프로비트 밴드 나지테 올로쿤(Najite & Olokun Prophecy (N.O.P.))가 함께 한다.

특히, 특별초청으로 판소리의 최고 명인 조통달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국악의 멋을 살리고 음악을 통해 다문화와 함께하는 어울림의 삶(life), 자연스러운 치유(healing)의 뜻을 [아리랑-아프로비트2016: 한여름의 사랑] 한-아프리카 합동공연에 담을 예정이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과 아프리카 두 커뮤니티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한 무대에서 관람하고,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아프로비트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밝혔다.

고수희 원장도 “이 공연을 통해 한-아프리카 커뮤니티의 화합을 도모하고 한인타운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 <아리랑-아프로비트 2016 '한여름의 사랑'> 공연

MC: Felicity Eng (이지양)

1. Samulnori Korean Drumming | 사물놀이
2. Kyobang Chukwonmu | 교방축원무
3. Gyeonggi Minyo |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4. Pansori Danga Sachulga | 판소리 단가 사철가
5. Pansori Heungboga | 판소리 흥보가 중 두손합장
6. Kyobang Janggu Chum | 교방장구춤
7. Odere | 오데레 아프리카 전통타악
8. Gyeonggi Minyo Chungchun-ga, Taepyong-Ga, Baetnorae |  
경기민요 청춘가/태평가/뱃노래
9. Gayageum Byung-Chang | 가야금 병창
10. Kyobang Salpuri | 교방살풀이
11. Arirang Afrobeat Shinawi | 아리랑-아프로비트 시나위
12. Omo Lere Aye “Children are the Benefits of the World” |  
오모 레레 아예 아프로비트 (아이들은 세계의 유산이다)

\*프로그램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일본, 하와이, 미주, 남미 등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 두루 퍼져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국인의 다양한 시대의 흐름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우리민족의 문화적 DNA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2012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아프로비트는 1970년대에 ‘흑인대통령’ ‘음악의 거장’ ‘음악의 미래’ ‘아프로비트의 제왕’이라고 불리운 나이지리아 출신의 천재 음악인 펠라 쿠티(Fela Kuti)가 서아프리카 전통음악을 재즈 (jazz), 펑크 (funk), 소울 (soul), 하이라이프 (high-life), 소리 (chanted vocals), 타악 (percussion)과 혼합하여 만든 장르의 음악으로, 흑인 음악가운데 레게 (Reggae) 음악 이후 가장 국제화에 성공한 음악이다. 펠라 쿠티 (Fela Kuti)의 수양아들이자 그의 음악적 소울을 이어받은 나지테 아진도탄 (Najite Agindotan)은 나이지리아와 미국을 오가며 전통타악과 춤을 가르치고 있고 현대와 전통을 포용한 아프로비트밴드 Najite & Olokun Prophecy (N.O.P.)를 이끌며 아프리카 커뮤니티와 주류사회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끝/